

남자 한복바지의 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Distinctive construction of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Eun J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4. 3. 31. 접수)

Abstract

Based on the theory that formation of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is related to Mobius strip, this study researches correlation between distinctive construction of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and historical background based on old documents and restoration.

Distinctive construction of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is manufactured just like Principle of Mobius strip that the square is twisted once, considering its materials' conditions.

Second,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manufactured larger, feature cubic effect and twisted formative beauty because its waist and ankle parts are tightened with bands.

Third,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composed of big Sapok and small Sapok in oblique, are suitable for active play due to its high functionality.

Key words: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Sapok, Mobius strip; 남자 한복바지, 사폭, 꼬비우스 띠

I. 서 론

우리 전통복에서 남자 한복바지는 그 구성상 직선과 사선으로 결합되어, 50여 년 전까지 좌식생활을 주로 했던 한국인의 의생활 구조에 적합한 옷으로 별다른 형태 변화 없이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바지 기원은 스키타이와 교류하여 바지를 입고 있던 흉노나 동호족 등의 영향으로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바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조선시대 중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박춘순, 1998). 현재까지 전통한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한복바지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바지의 허리말기가 나타나는데, 임진왜란 전·후의 출토유물에서 보면 허리말기와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대 전통바지의 형태를 볼 수 있다. 한복바지는 전통한복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해 왔음에도 그 동안 전통한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저고리나 포를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형태변화나 복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의 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미정(1989)은 컴퓨터에 의한 남자 한복바지 원형을 자동 제도하며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이순자(1992)는 남자 한복바지 원형 제도법의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정옥임(1997)은 한복바지 구성의 제도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mej0234@hanmail.net

쳤고, 이를 근거로 우리 옷의 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음양오행으로 풀어봄으로써 다른 나라 구성법에서 볼 수 없는 상징적 의미와 정신문화적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박미자(1996)는 한복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복의 구성형태와 옷으로서 조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를 규정하고, 박춘순(1998)은 바지의 기원과 전파, 바지를 착용하였던 각 지역의 독특한 개성,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바지형태의 복장에 대한 유형분류에 대해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복식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논문이 희소하여 몇 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연구 자료가 회화나 조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상의에 가려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거나, 남자 한복바지에 대한 고문헌이나 이론적 배경이 없기에 연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남자 한복바지는 한국의 기본복식을 이루는 근거가 되므로 남자 한복바지에 대한 좀더 학문적으로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실물제작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전통한복의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착용되고 있는 남자 한복바지의 형태가 수학의 원리인 피비우스의 띠와 연관되어 이루어졌다는 타 분야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김상일(1999)의 논리를 근거로 실물 제작과정을 통해 남자 한복바지 제작의 구성방법과 시대적 형성배경에 나타난 특성과 구성법에 따른

상관성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타 분야 학문을 전공한 학자의 학문적 이론을 뒷받침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한국 복식분야에서도 전통한복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자 한복바지의 형태

현재까지 전통한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남자 한복바지는 조선시대 들어와 바지의 허리말기가 나타나는데, 임진왜란 전·후의 출토유물에서 보면 허리말기와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대 남자 한복바지의 형태를 볼 수 있다.

1) 문헌을 통해 본 남자 한복바지

고대 우리나라 바지의 형태를 문헌자료와 고구려 고분벽화, 토우, 무령왕릉 등의 유물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서기 6세기까지 계층과 신분과 관계없이 바지부리를 여몄으나, 서기 7세기에 오면 여미는 대신 선을 두르는 형체가 출현한다(박선희, 2002). 현재는 바지, 고이의 두 가지 유형의 명칭이 존재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문헌에 나타난 고의 용어를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현재 착용되는 남자 한복바지와 동일한 형태의 조선시대 바지는 조선왕조실록에 단고(單袴), 겹고(袂袴)

<표 1> 삼국시대 문헌에 나타난 고의 용어

국가	고의 명칭	출처문헌
高句麗	窮袴	南齊書 東夷傳 高句麗條, 通典, 邊防 東夷 高句麗條
	大口袴	北史 列夷 高句麗條
	隋書 東夷傳 高句麗條	隋書 東夷傳 高句麗條
	袴大口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
百濟	青錦袴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爾王專 東夷傳 百濟條
	禪	梁書 諸夷 百濟條, 南史 東夷 百濟條
新羅	袴	三國史記 色服 新羅條
	赤袴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聖王傳
	褐袴	唐書 東夷傳 新羅條
	柯半	梁書 諸夷 新羅條, 南史 東夷 新羅條
其他	綾袴	三國遺事 駕洛國記
	赤黃袴	舊唐書 音樂條

<표 2> 조선시대 출토복식

입진왜란 전			
	남이홍록바지(1592)	성남동래정씨 겹바지(1604)	성남동래정씨 홑바지(1604)
입진왜란 후			
	동래정씨 베고의(1669)	홍진중 누비바지(1702)	김덕원 누비바지(1704)

라고 되어 있으며 단지 고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다. 단고는 홑바지를 말하는데 다시 면포단고(綿布單袴), 면주단고(綿紬單袴)로 구분된다. 겹고는 겹이라는 뜻으로 모두 겹바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상하의를 모두 백색과 생견으로 만든 겹바지를 착용하였던 것 같다(박춘순, 1998).

2) 유물을 통해본 남자 한복바지

조선시대 출토복식은 출토지역과 후손들의 족보 등에 의해 시대추정이 가능하며 정확한 시대성과 지역성을 지닌 실물자료로서 의복의 재질과 색상은 물론 형태 및 구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반가의 유물은 대부분 후손들에 의해 박물관에 기증되거나 후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착용자의 생존 연대 및 착용되었던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관직에 종사했던 상류층의 유물이 많다(박성실, 1992). 바지는 재봉방법, 복색, 사용 재료, 문양표시 등에 따라 솜바지, 누비바지, 겹바지, 홑바지, 가죽바지, 명주바지, 무명바지 등의 명칭이 있다(임영미, 1997). 입진왜란 후에는 동래정씨 베고의, 홍진중 누비바지, 김덕원 누비바지 등이 있다(박춘순, 1998). 현존하는 이들 유물에 나타난 남자바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마루폭, 큰 사폭, 작은 사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착용되고 있는 남자 한복바지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출토된 유물 중에 남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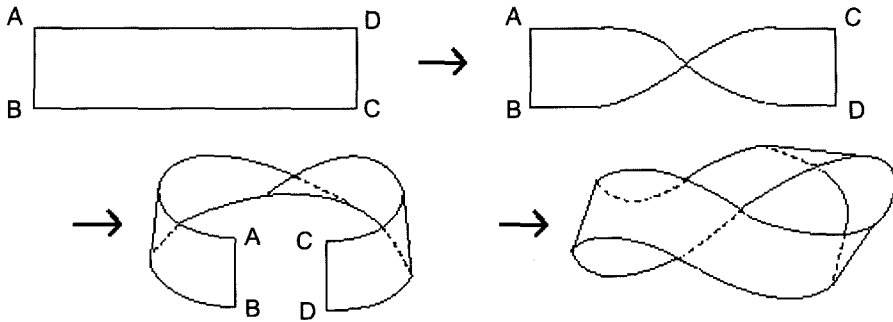
복바지를 도식화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바지의 분류는 크게 바지의 봉제방법, 길이와 폭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었다. 대구고(大口袴)는 외관이 직선적이고 여유가 있는 형태로 바지통이 넓어 바지 부리를 여뻐다. 백영자(1997)에 따르면 바지의 치수는 현재의 바지 치수와 별 차이 없이 조선말기의 바지와 현행의 바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2. 뫼비우스 띠

뫼비우스띠는 제시된 <그림 1>에서와 같이 긴 직사각형 테이프의 한쪽 끝을 180° 비튼 다음에 폴로양 끈을 이어 붙이면, 뫼비우스 띠로 불리는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이 하나로 이어진 괴상한 띠가 생긴다. 뫼비우스 띠에는 가장자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보통 띠는 가장자리가 2개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가장자리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은 모양이나 크기 등과 상관없이 없는 위상학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뫼비우스 띠와 보통의 띠는 동상이 될 수 없다(김용운, 김용국, 1992).

이러한 이론은 19세기 독일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뫼비우스(1790-1868)가 생각했다. 이 띠를 처음 창안하였다고 하여, 수학자의 이름을 붙여 뫼비우스의 띠(Mobius strip)라 불려진다. 뫼비우스 띠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을 가위질을 해 보면 보통의 띠는 2개의 띠가 되지만 뫼비우스 띠는 비틀린 1개의 띠가



<그림 1> 뫼비우스 띠의 원리 (재미있는 수학여행, 김영사.)

된다. 또 보통의 띠는 가장자리가 2개 있지만 뫼비우스 띠는 가장자리가 하나 있으므로 이 두 띠는 서로 다른 경계의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용운, 김용국, 2001). 실제적으로 종이는 앞·뒤 양면을 갖고 지구는 외부와 내부를 갖는다.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그 양끝을 맞붙이면 역시 안과 겉 양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안과 겉을 구분할 수 없는, 즉 한쪽 면만을 갖는 곡면이 된다는 것이다(조세희, 1982).

김상일(1995)의 논리에 의하면 남자 한복바지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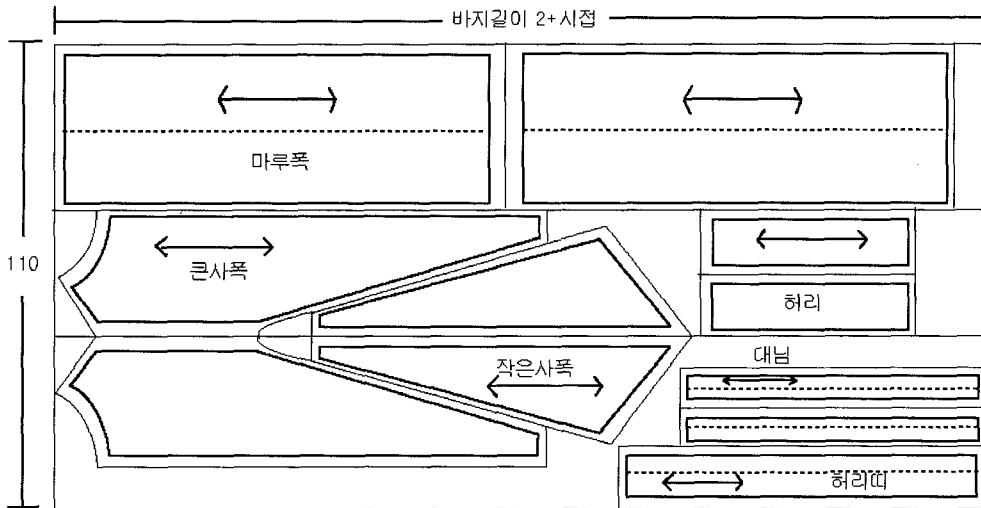
성은 시대적으로 서양에서 뫼비우스띠를 발견하기 몇 백년 전에 이미 이 띠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이 띠를 남자 한복바지의 구성에 실용화 시켰던 것으로 전체하고 있다.

III. 남자 한복바지의 구성

옷을 만드는 기본적인 옷감의 모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각형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한복이나 서양복이 동일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각형

<표 3> 남자 한복바지의 구성

				남자 한복바지	
				구성요소	형태
허리					
마루폭	큰폭	작은폭			
허리띠					
대님					



<그림 2> 남자 한복바지 본배치

을 어떻게 모양을 바꾸어 재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한복바지 구성원리와 피비우스 띠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대학에서 참고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재(백영자, 최해울, 1999; 손경자, 1995; 임상임, 유관순, 1999)를 선정하여 실제로 패턴과 제작과정의 비교를 통해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재마다 동일한 치수를 남자 한복바지의 기준치로 정하였으나, 바지를 구성하고 있는 밑각에서 사폭을 연결하는 부분의 치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형태나, 착용상의 기능적 측면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제도법이나 제작과정은 동일하여 구성원리만을 제시하였다.

남자 한복바지 구성은 제시된 <표 3>과 같이 크게 허리, 마루폭, 사폭의 세 폭으로 구성되는데 허리는 원형, 마루폭은 방형, 사폭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있다. 남자 한복바지는 앞과 뒤가 똑같은 모양이고 허리, 마루폭, 큰 사폭, 작은 사폭, 대, 대님으로 되어있다. 사폭의 길이가 동일하며 어떤 치수의 경우에도 좌우 사폭의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 사폭 중심선을 접어 보았을 때 대칭을 이룬다.

남자 한복바지는 마름질할 때에 길감이 서로 마주 보게 되어있는데, 이는 봉제에서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연결할 때 비틀림의 방향전환을 통해 솔기가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피비우스 띠의 원리를 적용시켜 마루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좌식문화 생활 속에는 활동이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도록 구성되었다. 남자 한복바지 본배치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3-1>은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남자 한복바지를 구성할 때 서로 반대로 되어있다. 이는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연결할 때 비틀림의 방향전환을 통해 솔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큰 사폭의 곧은 솔기와 작은 사폭의 어긋 솔기를 박는데 작은 사폭의 겉에 큰 사폭의 겉을 맞대어 놓고 반드시 큰 사폭을 박는다. 박을 때는 큰 사폭 쪽에서 박는데, 이는 작은 사폭의 어긋 부분이 바이어스 방향이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3-2>은 마루폭과 사폭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한복바지는 양복바지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마루폭이 좌·우에 붙어 있다. 마루폭과 좌·우 사폭들의 관계는 하나의 피비우스 띠에서 등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좌·우에 두 마루폭이 있으니 결국 이 피비우스 띠를 2등분시키면 쌍 피비우스 띠가 또 생겨날 것이고, 이 쌍 피비우스 띠가 앞 사폭과 뒷 사폭을 결정하고, 또 하나의 쌍 피비우스 띠가 좌·우 마루폭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은 길감과 안감을 맞대어 허리를 박는 방법인데, 안감 허리와 길감 허리를 겹거리 맞대어 안쪽으로 돌아가며 박는다. 남자 한복바지는 크게 위아래로 나눠 생각 할 때에 허리와 사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사폭, 위는 허리라고 할 수 있다. 허리를 자연고리, 즉 원이라고 할 때에 아래 부분은 피비우

<그림 3> 남자 한복바지의 구성과정

	도식화	사진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스 띠이다. 이러한 뒤편의 띠를 남자 한복바지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리에 적용해 보면 옷감은 겉면과 안면이 있는데, 걸감을 중심으로 봉제를 하다보면 옷감이 원래 가진 전후(前後)가 있고 그것의 전후가 뒤 바뀌어 옷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옷이 가지고 있는 전후가 있다.

<그림 3.4>는 걸감과 안감을 이어주는 배래를 박는 방법인데, 배래는 4겹을 겹쳐서 놓고 부리끝을 잘 맞추어 함께 돌려 박는다. 남자 한복바지를 봉합할 때 바지의 배래를 안감과 걸감을 함께 박았으며 또한 허리 부분은 안감과 걸감을 함께 박았다. 이는 착용할 때 안감과 걸감이 따로 움직이지 않으며, 세탁을 할 때도 안과 겉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봉제법이다. 남자 한복바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폭의 마름질의 방향이 틀려도 봉제 시 뒤집었을 때 형태변형이 없는 것은 한복 마름질에서 특징적인 비틀림으로 구성된 뒤편의 띠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한 남자 한복바지는 장방형의 마루폭과 삼각형을 이루는 사폭, 호(弧)를 이루는 가마귀머리를 들 수 있고, 원형에서 특징은 좌·우 대칭방법이 아니고 변화 있는 대칭으로 인체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봉합하고 다시 마루폭을 봉합하며 다시 마루폭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선과 면적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지양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봉합선에 가해지는 힘의 분산까지도 얻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정옥임, 2001).

이러한 구성은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뒤편의 띠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시켜 마루폭과 연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좌식문화 생활 속에서 활동이나 착용감이 편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남자 한복바지 허리와 부리에는 여유분이 많아 접어서 대(帶)로 묶게 되어 있는데, 대나 대넘은 마름질하고 남은 여분의 옷감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IV. 남자 한복바지 구성에 따른 특성

남자 한복바지는 허리, 마루폭, 사폭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허리는 원형, 마루폭은 방형, 사폭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서양복 바지는 앞·뒤 옷감을 앞은 앞으로 뒤는 뒤로 그대로 재단을 한다. 하지만 남자 한복바지는 사각형의 옷감을 앞뒤로 포갠 다음에 그냥 가랑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겉면과 안면의 옷감을 한번 비틀어 아래·위를 붙인 다음 대각선으로 잘라내 좌·우 바짓가랑이를 만든다.

서양복 바지는 겉면과 앞면의 옷감을 서로 마주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면을 포개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자 한복바지는 평면을 비틀어 만들었다(김상일, 1995). 결국 뒤편의 띠와의 상관성에서 작은 사폭과 큰 사폭의 연결을 통해 바지를 제작하는 남자 한복바지 구성에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인 구성법

인체에만 기준을 두고 구성된 서양의복 구성법과는 달리 남자 한복바지는 인체에 입혀지지만 입힐 의복을 만들 재료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성된 바지원형이라는 점에서 서양의복 원형 제도법과는 다르다(정옥임, 2001). 남자 한복바지의 경우는 공간과 옷본을 동일시하여 휘고 비틀어서 바지를 구성한다. 서양복 바지는 사각형을 포개어 좌우 가랑이를 만든다. 그래서 이차원의 평면성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인체는 부피를 가진 삼차원이다. 그래서 양복바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자 한복바지는 사각형을 한번 비틀어 뒤편의 띠를 만들어 재단한다(김상일, 1995). 또한 남자 한복바지는 봉제를 할 때 바지의 배래를 안감과 걸감을 함께 박았으며 또한 허리 부분은 안감과 걸감을 함께 박았는데, 이는 착용할 때 안감과 걸감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소재성분에 따라 세탁 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탁을 할 때도 안감과 걸감이 밀리지 않도록 봉제한다는 점에서 우리 한복 제작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봉제법이다.

2. 꼬임의 조형미

조화된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선을 넣어야 보다 기능성이 있겠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디자인의 원리를 충분히 적용시켜 비례의 원리에 맞으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면을 나누고 선과형을 배치해야 한다(이은영, 1999). 서양복 바지는 직사각형의 옷감을 상하 좌·우로 마주 붙여 사람 몸에 맞게 구성되어 전·후, 좌·우를 나누는 선이 분명하나 남자 한복바지는 앞·뒤가 대칭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선의 활용은 선의 시각적 효과와 인체구조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마름질에 있어서는 옷감을 잘 때 수작업에 의해 만들었기 때문에 소폭의 옷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옷감의 소폭 활용은 인체의 기능적인 면에서 좌식생활 문

화에서의 앉은 자세가 바지구성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마루폭과 사폭이 연결을 통해 이어지고 허리는 원통으로 연결되어있다. 원통인 허리는 입고 벗기에 편리하지만 허리둘레 치수보다 남은 여분을 앞쪽으로 접어 허리띠로 묶게 되어있다. 바지부리는 발목에 묶어지게 되는데 허리와 같이 바지부리의 크기는 발목둘레에 비해 여유분이 많으므로 발목 안쪽으로 남은 여분을 모아 띠로 묶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단추로 처리하면 전혀 한복의 정취가 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전통한복의 특성 중 하나인 고름을 여밀 때 묶고 푸는 때에 대한 민족적인 정서인 꼬임의 조형미로 남자 한복바지에서 볼 수 있다.

3. 문화적 기능성

남자 한복바지의 구성은 대칭이지만, 앞뒤 중심이 사선으로 이루어져 동작을 할 때 여유량이 많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한복바지는 착용자의 위엄을 나타내며 좌식생활에 편안하고 여러 체형에 까다롭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함과 풍성한 여유가 있다. 또한 운동량이 많은 하체에 착용되는 남자 한복바지는 구성 자체로 볼 때 앞·뒤 중심에 사선으로 이루어진 큰사폭과 작은사폭이 있어 자세 및 동작에 순응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유량으로 인해 동작의 변화에 적응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자체의 미적 조화나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경험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남자 한복바지와 서양복 바지를 기능적인 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서양복 바지는 인체에 따라 일정한 치수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공간만이 허용되어 신체의 체중에 따라 조절의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남자 한복바지는 넉넉한 여유분으로 신체의 체중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 민족의 생활공간인 좌식문화에 활동하기 편하도록 기능성이 고려되었다고 본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전통복의 형태는 그 나라의 자연적 환경인 외적조건과 문화적 환경, 민족성,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내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즉 국가의 민족복의 형성에는 관습이나 풍속, 가치관 등이 적용되

어 전통복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남자 한복바지는 전통복으로 서양보다 수백년 전에 수학적 원리인 피비우스의 띠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이를 실용화하였으며, 남자 한복바지를 좌식생활에 편안하고 여러 체형에 까다롭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풍성한 여유 있는 일상복으로 구성시켰다. 또한 운동량이 많은 하체에 착용되는 바지는 구성자체로 볼 때 앞뒤 중심에 사선으로 이루어진 큰사폭과 작은사폭이 있어 자세 및 동작에 편안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했던 시대의 노동복으로도 착용되었다. 다양한 용도로 착용했던 남자 한복바지 구성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체에만 기준을 두고 구성된 서양복 구성과는 달리 피비우스 띠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남자 한복바지는 사각형을 한번 비틀어 피비우스 띠를 만들어 재단한다는 점에서 인체에 입혀지지만 입힐 의복을 만들 재료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성된 바지 원형이라는 점에서 남자 한복바지는 서양의복 구성과는 다르다.

둘째, 폭이 좁은 옷감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성된 남자 한복바지는 피비우스 띠의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단되어 정확하게 바지의 입체형을 가늠할 수 있고, 치수보다 넉넉한 허리나 발목의 여유분은 띠로 묶고 푸는 여밈을 통해 한국적인 민족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꼬임의 조형미가 있다.

셋째, 전통적인 좌식문화 속에서 착용했던 남자 한복바지는 착용자의 위엄을 나타내며 좌식생활에 편안하고 여러 체형에 까다롭지 않게 착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안함과 여유분이 많은 남자 한복바지는 운동량이 많은 하체에 착용되어 남자 한복바지는 구성 자체로 볼 때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이 사선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기 쉽고 기능적이다.

이러한 남자 한복바지 구성에 나타난 특성을 통해 그동안 착용해 왔던 우리민족의 전통복에 대한 우수성을 재조명하여, 전통적인 한복제작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전통한복이 현대 감각에 맞는 민속복으로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한복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미정. (1989). 컴퓨터에 의한 한복 남자 바지 원형의 자동

-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2), 146-154.
- 김동욱. (1973). *한국복식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상일. (1995). *피지와 한국문화*. 서울: 전자신문사.
- 김상일. (1999). *초공간과 한국문화*. 서울: 교학연구사.
- 김용운, 김용국. (1992). *위상기하학*. 서울: 동아출판사.
- 김용운, 김용국. (2001). *재미있는 수학여행 4*. 서울: 김영사.
- 김주영. (1992). *복식조형의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자. (1996). *한복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선희. (2002). *고대한국복식 그 원형과 정체*. 서울: 지식산업사.
-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서울: 민속원.
- 백영자, 최해율. (1999). *한국의 전통봉제*. 서울: 교학연구사.
- 손경자. (1995).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 이순자. (1997). 남자 한복바지 원형 제도에 관한 연구. *복식*, 15, 21-46.
- 이은영. (1999).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임상임, 유관순. (1999). *한복구성*. 서울: 교문사.
- 임영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 정옥임. (2001). 한복바지 원형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97-109.
- 정옥임. (1997). 한복바지 구성의 제도법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5(4), 95-109.
- 조사회. (198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서울: 문학과 지성사.